

시론



오수열
조선대 명예교수·한국동북아학회 이사장

호남정치의 자부심을 회복하자

행이 아닐 수 없다. 잠시 시계를 옛날로 되돌려 보면, 우리 지역은 정치적 에너지 면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강력했고 동태적(動的)이었으며 인물을 평가하는 안목 또한 가장 뛰어난 곳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곳이다. 말 그대로 약무호남(若無湖南)이면 시무국가(是無國家)였던 것이다. 특히 해방 후 정부수립 과정과 자유당 독재치하에서 우리 지역의 남치는 정치적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뛰어난 정치인들을 배출했고, 이들이 한국정치를 좌우하지 않았던가. 인촌 김성수, 고하 송진우, 근촌 백관수는 물론이고, 낭산 김준연, 월파 서민호 등이 우리 정치를 좌우했으며, 박정희 독재치하에서도 정성태, 김녹영 등 지조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감동시켰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지역의 정치는 점차 역동성(力動性)을 잃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민주화가 이뤄졌다는 '자기위안'과 함께 이 지역의 인사들이 대거 정부와 정치권에 총원되면서 과거와 같은 정치적 욕구, 간절함 그리고 지역인들의 '연대의식' 등이 저하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총원된 지역인사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평판이 갈리면서부터 정치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냉소가 짙어지기 시작했고, 지역사회의 연대감도 저하된 감이 없지 않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지역에서 큰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과거와 같은 분위기도 사라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중량감 있는 대선 의원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인물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인물은 주위의 노력만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慧眼)과 정치적 지조(志操)가 있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들어 우리 지역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정의(正義)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던져 투쟁하는 '결기 있는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것을 몹시 아쉽게 여기고 있다. 당내의 공천룰과 과정이 불공정하면 격렬하게 항의하고 그 과정에서 거취를 결정할 일이지 공천에 목을 매고 굴신 하다가 탈락하자 탈락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선 것이 아니었다. 당내 소수파라는 어려움을 속에서도 당시 당권을 가졌던 '진산계'(鎭山系)의 선명하지 못한 노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함으로써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고 마침내 1971년 4·27 대선후보에 올랐던 것이다.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호남의 정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려움수록 지혜와 용기를 잃지 말고 상호 연대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정치적 자부심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을 달구던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지지호소 문자가 폭폭 쏟아진 것을 보니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대개 결정된 모양이다. 하기가 우리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후보만 되면 국회의원은 파는 당상이니 합쳐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을 법도 하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가장 흥겨운 잔치'라고 불리고 있다. 더욱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대선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행사로 국민들의 정치적 에너지가 분출되는 장(場)이 돼야 한다. 그런데 선거일이 아직도 30일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정정당의 후보가 결정되자마자, 마치 '김빠진 맥주' 꼴이 되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싱거우면서도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이러한가? 그렇지 않는데 우리지역의 심각성이 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우리지역처럼 지역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남지역까지도 여야의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는 이제부터라는 열기(熱氣)가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의 광산을 지역 출마선언으로 이 지역이 관심지역으로 부상한 것은 그나마다

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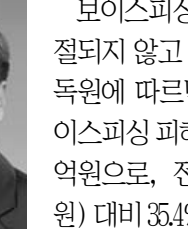
신미영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부장

국가적 자산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전남의 섬'

남도는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해 여수일원 섬의 비전을 제시하고 섬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소득 창출이라는 원대한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세계섬박람회 유치와 함께 전남의 섬들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그 가치도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한때 전남 섬들은 버려진 땅이었다. 유배지 정도로 인식되던 섬이 점차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남의 섬들이 마지막 남은 미지의 자원으로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인데, 정부에서도 '섬 발전 촉진법' 제정을 통해 섬의 가치가 육지에 못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전남도에서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섬의 발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섬 자원 활용 SOC,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컨테이너 개량 등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전남 남서해안 지역도가 크게 바뀌어 낙후의 이미지를 벗고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전남 지역에 분포한 섬은 전국 섬의 60% 정도인 1천964개에 달한다. 이들 섬지역의 풍부한 문화와 생태계는 국제적으로도 드문 국가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이런 생태계에 독특한 문화 컨테츠를 접목하면 전남 섬은 국제적인 눈길을 끌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도 충분하다. 최근 신안 천사대교 개통을 계기로 전남 섬에 사시사찰 많은 사람이 찾는다. 이는 섬이 주는 이색적 문화와 재미적 요소가 휴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의미다. 이에 맞춰 신안군이 주관한 중도 섬개별 축제에 관한 명이 찾아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 섬에서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얼마든지 자원화가 가능하다는 사례다. 올해 여름에는 전남 섬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섬'이 되도록 우리 전남도와 각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남의 미래 발전 자산으로 떠오른 섬에 대한 가치발견은 이제 본격적으로 서막이 올랐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끝나면 진짜 이벤트가 기다린다. 바로 '2027 국제 섬문화 엑스포'다. 2027년 개최가 결정되면 지난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 이어 3번째로 대규모 인정 엑스포(Recognized EXPO)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프라를 전 세계인이 경험 할 기회다. '2027년 국제 섬문화 엑스포 전남 유치'라는 쾌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하늘 아래 모든것이 보랏빛으로 변하는 등화 같은 신안 반월·박지도, 커다란 케이크와 함께 생일 종이 울리는 완도 생일도, 섬 전체가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연흥도, 노란 유채꽃으로 붉을 여는 진도 관매도, 바다 위의 정원 여수 순죽도. 손으로 꼽기 어려울 만큼 각기 다른 매력과 가진 섬들이 많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2026년에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된다. 전남의 섬은 세계섬박람회 유치와 함께 그동안 불모지라는 인식에서 획기적 전환기를 맞게 됨은 물론, 섬의 진정한 자원화를 위한 첫걸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여수 돌산 진도지구와 화정면 개도, 남면 금오도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935억원으로, 전년(1천451억원) 대비 33.4% 증가했다. 피해자 수는 1만1천503명이었고 1인당 피해액은 1천710만원으로 집계됐다. 1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4천650명이며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도 다수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는 2006년 이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2년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등 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는 것은 범죄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공공기관을 사칭, 계좌로 송금받

보이스피싱 범죄 이전 뿌리 뽑아야 한다 는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대표통장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지연 인출 제도 등 방화책이 시행되자 대면편취 수법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악성코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 악성 URL을 통해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빼내며 금융기관 종사자나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를 피하고자 실시간 화면 및 음성 도청까지 하는 등 날로 수법은 진화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선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도 고령층부터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까지 다양하며, 평범한 직장인들이 (신동중·북부경찰서 형사2과장) 도 성별이나 특별한 연령대, 직업 구분 없이 범죄에 노출됐다. 피싱 범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출처 불명의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자. 또 일단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자. 악성 앱 설치 여부 등 간단한 '안티어플' 확인으로 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는 피싱범죄. 조금만 주의하고 신속히 신고해 준다면 범인들은 형사가 뿌리 뽑겠습니다! (신동중·북부경찰서 형사2과장)

社說

공보의 차출에 놓여촌 의료 불편 불보듯 뻔할 것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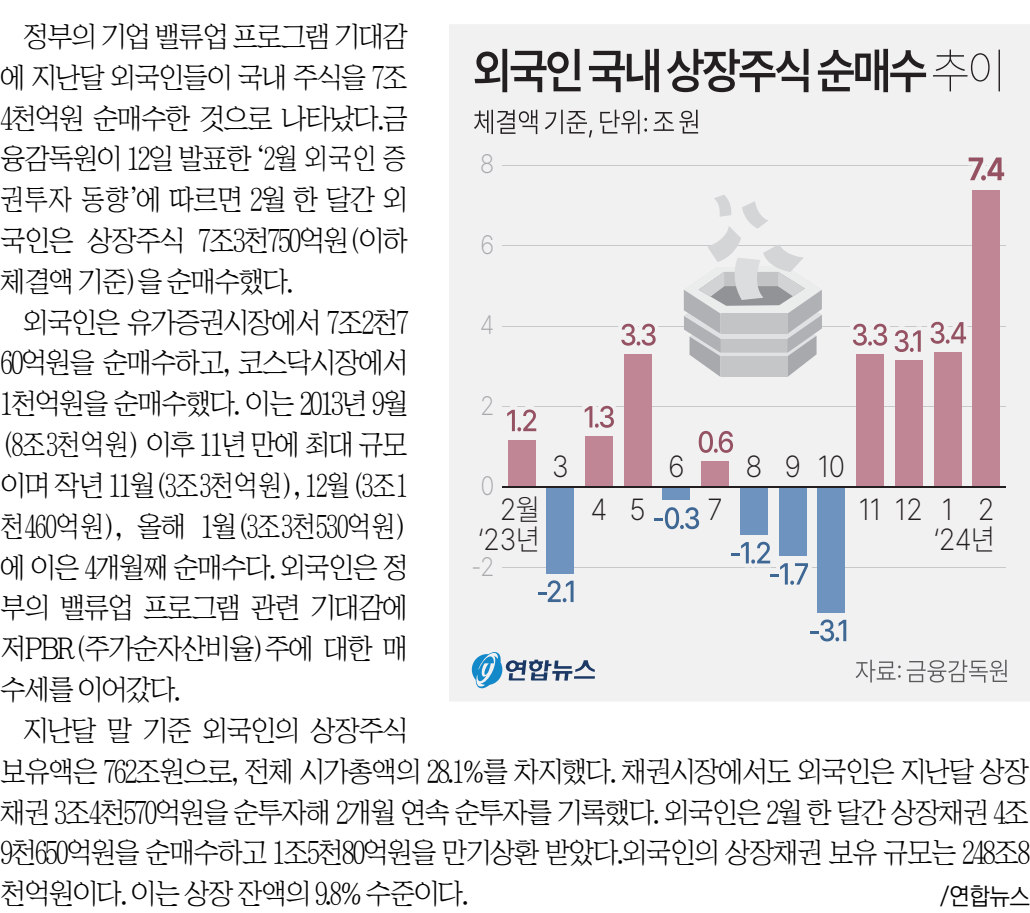
의대 증원 반대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4주에 접어들면서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 신고센터에만 수술 및 입원 지연 등 1천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한다. 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공백 사태를 메우고자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 배치했다. 놓여촌 주민은 불편을 감내해야 할 판이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전공의 대다수가 집단 사직 이후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은 병상 가동률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수술도 최소화하는 등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하는 등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 등의 숫자가 적은 데다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치될지는 의문이다. 놓여촌은 공보의 의존도가 높다. 사태가 길어지면 진료 업무 기능 약화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 돌격기식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강대강 대치 명분이 부족하다.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파국은 막아야 한다.

尹 민생토론회 공동개최 거부한 광주시의 속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이 호남 민생도 살펴 달라고 요청한 지 한 달이 지나 전남도와 공동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단독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전남도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계획대로 준비하겠다고 한다.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강 시장은 "이미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고, 시민이 원하지 않는 방식임이 분명하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가 널려 있다며 논의 대상으로 인공지능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항 이전,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건설업계 위기, 복합쇼핑몰 기반 시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의 국민회의원 후보 공천 등을 들었다. 군 공청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함께해야 할 이유, 또 그런

그래픽 뉴스

외국인 지난달 국내 주식 7.4조원 샀다... 11년만에 최대 규모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